

아빠는 암살당하였다



1952년 8월



허가이 (전 북조선노동당 부위원장)와 그의 가족사진.
좌측이 부인 최니나 페드로브나, 뒷줄 장녀 허넬라(좌)·차녀 허리라(우),
앞줄 장남(우)·차남(중)·박정태의 아들(좌)

나의 아버지, 허가이 알렉세이 이와노비치는 1908년에 원동 변경 연해주
옌시예트 구역에서 탄생하였다. 아버지가 9세 되는데에 기살되는
형과 함께 고아로 되었다 양부모를 앓은 아버지는 삼촌의 집
에서 자라면서 어머니 우리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그의 유년시대와 소년시대는 흰빛음과 굶주림에서 지나갔으나,
소년단 공청회 사업에는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군공청회, 군당지도
원등, 군공청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시다가 1937년 스탈린 독재
주의에 의한 조선인 강제 이주시기에는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리안나
(역시 1908년생) 함께 딸 3형제를 데리고 떠났으나 도중에서 딸
하나가 또 생겨서 딸 4형제를 데리고 비교적 살기 좋은
우르베크스탄 타슈켄트주 양기울 구역에 도착하였다 우르베크스탄에
도착한 아버지는 역시 전처럼 군공청회, 군공산당위원회 비서로 일하시
다가 1941-1945년 시기에는 게르기나 대우하 건설공사장 당중앙위원회
대필로 당조직원으로 계속 일하시었다.

1945년에 2차 세계 대전에서 소련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아빠는 암살당하였다.

나의 아버지 허가이 알렉세이 이와노비치는 1908년에 원동연강 연해
주보시예는 구역에서 탄생하시었다. 아버지가 9세되는년에 11세되는 동생과
함께 고아로 되었다. 양 부모를 잃은 아버지는 삼촌의 집에서 자라면서 어려서
부터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그의 유년시대와 소년시대는 흰빛음과
군주립에서 지내었으나, 소년단, 공청회 사업에는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군공청회, 군당
지도원급, 군공청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시다가 1937년 쓰담된 독재주리에 의한 조선
인 강제 이주시기에는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리안나(역시 1908년생) 함께 딸 3형제를
데리고 떠났으나 도중에서 딸하나가 또 더 생겨서 딸 4형제를 데리고 비교적 살기 좋
은 우르베코스한 하슈겐족 안기울 구역에 도착하였다. 우르베코스한에 도착한 아버
지는 역시 전처럼 군공청회, 군공산당위원회 비서로 일하시다가 1941-45년 시기에는
페르가나 대운하 건설공사장 당중앙위원회 대운로 당조직원으로 계속
일하시었다.

1945년에 오차 세계 대전에서 소련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북
반 제국주의가 패망되고 조선반도는 해방되었다. 일제의 강박한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각이한 사회정치제도를
가진 두 나라 해방군이 북한과 남한에 상륙함으로써 인하여 수천년을 단일
민족, 단일 문화, 풍습 전통을 행해왔던 삼천리 강산 하나의 나라가 두 동강
이 나서 삼이한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두 나라가 되고 말았다.

바로 이 당시에 소련 공산당 조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소련에 살
고 있던 많은 한인 공산당원들은 북한으로 파견되게 되었으나 나의
아버지도 이에 따라 1945년에 소련식으로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
하여 북한에 파견되었다.

북한에 파견된 아버지는 처음에는 조선공산당 북한 분국 다음 합
당 이후로 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이란 전심으로 돌아부위원장
일을 계속하시었다. 북한에는 공식적 규약과 강령을 소유한 공
산당이란 없었다. 김일성이 자기 혼자서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할시 공산당을 조직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거도 없는 거짓
말이다. 북한 공산당은 허가이가 조직한당이다 그러나 그는 당수
되기 위하여서 당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위하여서 그것을
하였다. 허가이는 북한에 도착하자 오랜 당조직 일군으로서 재

자기의 풍부한 경험을 리용하여 조선공산당 강령, 규약, 및 당의 조직체계를 더 세세히 연구하여 그 문헌들을 조선말로 번역하여 조선공산당 규약 강령을 만들어 내어쓰려 조선공산당(다음로 동당) 세포, 초급당 단체, 당 그룹, 군당, 도당들과 당 중앙위원회 등을 조선공산당 체계대로 조직하고, 당회의 진행방법, 회의록작성 방법, 당 대회, 당상부위원회등을 진행하는 방법과 당문건들을 처리하는 방법등을 일일이 조직 정리하였으며, 전체 당일꾼들에게 자서히 가르쳤다. 김일성은 15세 때부터 맑스주의를 연구하였노, 맑스자본론을 연구하였다고 힘스 빈노리만 칠글알았지 만당이란 당제도, 철학이란 철제도, 경제학이란 경제도 모르면서 주체 철학이란 것을 세상에 웃음거리로 내놓고, 사람이란 유식하면 자기가 부식하다는 것을 알려만 자기가 부지 못대하다나. 자기가 내여놓은 것이 유심논인지 유물론인지 모르고 앓다가 작고 되었다. 김일성은 자기를 공산주의자, 맑스주의자로 가칭하였으나 자기가 벗어낸 주체 노위 철학이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말하던 것이 왜 백세까지 살면서 복한 인민들을 더 고생시키지 않고 벌써 세상 떠났는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게 결정하였는가?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 뇌다, 뇌는 물질이요, 그의 산물은 정신이다. 그렇다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유심론이다. 그러나 복한이 망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풍악도 바로 나오지 못한 김일성이 세상에 새 철학을 발표하였더니 참 소가 웃다가 꾸레기 허질 일이다. 이렇게 걸으러 놓고도 누치스 럽은 것을 모르니, 그 후 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말하다나니 기본 문건에서 정리할 되었다.

허가이는 진심으로 조선공산당에서 지시한대로 김일성을 좋아서 당, 행정일을 전달하며 일하였다. 그러나 당일은 전적으로 허가이가 조직지도하였기에 북한에서는 그를 당 박사라고 칭하였다. 각 도들에서 도당 위원장들이 평양에 왔다가 김일성에게서 지시를 받고도 허가이를 만나지 않고서는 도로 다시 내려가지 않았다. 그들은 말하기를 당 중앙에 왔다가 당 박사를 만나보지 않고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아래로 도루 내려갈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진실한 간부들은 허가이를 믿었노라, 그를 존경하였다. 이 인민들의 존경을 김일성은 두려워하였다. 김일성은 허가이를 쫓겨신 쫓아내기 위하여 그를 대치할 박창옥 박정애, 박근철 박영빈을 내세우고, 허가이를 당 부위원장 직위에서 빼여 내각 부수장으로 임명

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허가이를 반대하는 그룹³을
이상 나 박개들로 조직하고 당중앙 상무위원회에서 허가이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요물리는 자산적속지 포격후 그 복구사업을 잘지도하지

조선 전쟁
이 끝날 무렵에 정치적 혐의
로 인하여 아버지는 암살 당하
였다. 아버지는 암살 당할시 45
세였다. 그 당시 공화국 지도
층에서 아버지를 둘러싼 정치
적 음모는 결과적으로 1953
년 7월2일에 아버지를 암살하
고 우리에게 "자살" 하였
다고 전하였다. 나는 그 당시
「사박가에게 허가이가 물리
워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
으며 또 알 수도 없었다. 다만
그 후에 그 의미를 알고 보니
박씨 4명(박영빈, 박정애, 박
창옥, 박금철)이 아버지를 암살
할 토대를 꾸려주어 김일성

못하였다는 생김어뜨기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 동쪽
상쟁이 끝날 무렵이었다. 김일성은 이 비판으로 인
하여 허가이가 불만을 품고 자살한듯이 환경을 조성하
였던 것이다.

의 지시로 정치적으로 두려
운 대상을 제거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논증한다.

1. 아버지가 암살당한 후 나는
16세되는 중학생으로서 나의
친정 남동생 허이고리(당시4
세)를 데리고 이모를 따라 최
표덕 장군의 집에서 오래동
안 살게 되었다. 나는 최장군
에게서 아버지의 암살사건에
대하여 수차 들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나에게 이야기
하여 주었다.

- 나는 7월1일 저녁8시 경에
허가이의 사위 황금철이와
함께 허가이가 살고 있는 임
시사택(대성산 산골에 임시
로 지은 집)에 찾아 가서 저
녁 식사도 하고, 값높은 서양
술도 조금씩 마시면서 밤 12
시까지 휴식하고 황금철이와
같이 집에 돌아왔다.

만약 그

에게 내일 새벽에 자살할 계획이 있었다면 어떤 이상한 기색이 보였겠는데 그런 눈치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오기를 「허가이가 자살하였다」고 하였다. 그 즉시로 차를 타고 어제 저녁에 왔던 사택에 다시 가니 시체도, 개인이 사용하던 짐도, 허가이와 항상 같이 살던 3명의 부관

도, 2명의 자동차 운전수도, 연락병들도, 간호원들도 한 명도 없고 다만 처음 보는 군인 몇명이 있었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 하였다.~~ 그때에 최장군은 즉석에서 김일성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허가이 시체를 조급히 매장하였는가? 왜 부인, 딸, 사위 다른 친척들의 참가도 없이 또 의사들의 검진도 없이 매장하였는가? 이것은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사 검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시체를 자세히 검열하고 심의한 결과를 검진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출판 보도할 것을 제의한다고 하니, —김일성은 자살한 자에게 무슨 검진이 필요한가 하면서 당신은 당장 물러가라고 큰고함을 질렀다— ~~표현하였다.~~

독재자의 말대로 최장군은 몇일이 지나지 않아 소련으로 추방되고 말았다.

보라!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여 주는가? 김일성은 무엇이 두려워서 아빠의 시체를 조급히 감추었는가? 이것은 자기가 조작한 암살이 탄로될까 두려워서 한 술책이다.

물론 누구든지 시체를 본다면 암살과 자살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아빠는 적어도 국가의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 반드시 최표덕장군의 제의대로 국가 의사 검진위원회의 결론에 의하여 어떻게 사망 되었는가? 하는 결론을 받아야 할 것이었으나 고의적으로 조직한 암살이니 고의적으로 시체를 조급하게 매장하고 그 묘지도 누구에게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2. 아빠가 암살 당한지 3일만에 나의 어머니 최나나베드

로브나가 할빈시로부터 평양에 도착하였다. 도착한 즉시로 김일성에게 면회를 간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자기 남편이 사용하던 개인 물품들과 의복들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은 죄다 불살라 버렸다고 대답하였다. 또 밤낮 같이 있던 부관들중 누구나, 간호원 중 누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연락병이라도, 혹은 자동차 운전자 2명중 누구든지 만나게 하여달라는 요청도 거절하면서 어디로 조동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아
니
면

보라! 인민의 “아버지”로 자칭하고 출판물에 선전하는 영명한 “수령” 인민의 “태양”의 양심은 공명심과 정치적 야욕으로 바꾸어 채우고 얼마전까지도 한집 식구처럼 오라비 누이 처럼, 친동생간 같이 이틀이 멀다고 여기면서 부인, 아이들을 데리고 드나들던 그 김일성이 무엇으로 변하였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는가?

보라! 김일성이는 왜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아빠와 생사를 같이하던 그 부인에게도 자기 남편을 볼 수 없게 하였는가?

자기가 손수 조직한 암살이 아니라면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조급하게 하였는가?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군주제도, 왜정때에도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부모자식들에게 보내 주어 매장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것은 김일성이 조직한 정치적 모략이요, 암살이다.

3. 나의 자매 허마이야는 해군 군관학교 교관 황금철의 부인으로서 우리가 1953년에 북한을 떠난 이후에도 약 5년 동안 계속 북한에서 살

게 되었던 바, 이 5년간 부단하게 그는 아빠의 세상떠남의 환경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 자매는 아빠의 부관들이나, 간호원들, 연락병들, 자동차 운전수들을 잘알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누구든지 만나보려고 노력하였으나 모두 다 헛된 일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나는 그 사람의 이름과 직무를 여기 쓸 수 없다. 그 사람의 신변 문제이기 때문에)은 그 환경을 목격하였고 또 다른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토론도 하였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 아버지가 자살하였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오.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이 총으로 자기를 뒤에서 쏘단 말이오. 나는 그 아버지가 뒤에서 쏘 총에 맞아 희생된 것을 목격하였는데 만약 그 때에 아버지 하고 같이 있던 부관들이나 간호원들이 있으면 이것을 다 증명할 터인데. 그들은 다 청산되었기에 김일성은 자살이라고 떠들어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소 -」 자매 허마이야는 이말을 누차 반복하였다.

나는 이상의 모든 자료들
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아빠
가 암살 당하였다는 것을 확
증하는 바이다.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인
민의 수령” 김일성이를 직면
하여 보면서 묻고 싶다.

「당신에게 양심이 있는가?」
고 「만약 있다면 그 양심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가?」라
고, 우리들은 한결같이 아빠
에 대하여, 할아버지에 대하
여 암살의 진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며, 묘 앞에서 절하
고 싶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
린다. *허가이의 딸 허리타*